

이차전지

Tesla 1Q24 실적 설명회 요약

이차전지/석유화학

Analyst 노우호

02. 6454-4867

wooho.rho@meritz.co.kr

[실적 요약]

1Q24 총 생산량 43.3만대 / 인도량 38.6만대

매출액 21,301 Mil.\$ (-9% YoY/-15% QoQ)

GPM 17.4% (-1.9%p YoY/-0.2%p QoQ)

OPM 5.5% (-5.9%p YoY/-2.7%p QoQ)

EPS(GAAP/non-GAAP) 0.34\$/0.45\$

[Tesla의 EV 및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]

1. 1Q24 Tesla 자동차 사업부문 매출액 감소 요인

- 독일 베를린 Gigafactory 가동률 차질(연초 홍해 물류차질, 가동 차질)
- 미국 Fremont Model 3 Highland ramp-up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
- Tesla는 부정적 영업환경(수요 비수기, 경기 불확실성 등) 및 차량 가격 인하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단위당 원가 절감 노력으로 상쇄
- Austin/Berlin의 Model Y 단위당 생산비용은 Fremont 수준으로 하락 중

2. Tesla의 EV 가이드선스

- Elon, "Electric vehicles will ultimately dominate the market."
- Tesla는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하이브리드 출시 및 EV 전략 변화에 'not the right strategy'를 강조

3. Tesla의 에너지 사업부문 분기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

- 1Q24 ESS 설치량 4,053Mwh 기록(+4% YoY/+27% QoQ)하며 마진율 24.6% 기록
- 향후 에너지 사업부문의 분기/연간 실적 증가율은 자동차부문을 앞설 것
- 2024년 연간 설치량은 +75% YoY 증가 가이드선스 제시

4. Model 2(\$25,000) 출시 일정

- Elon, "~to be more like the early 2025"
- 원가(Cost) 및 가격(More Affordable) 경쟁력 기반의 신규 차종 출시 예정
- Model 2 출시 이후 Tesla는 3백만대의 EV 생산규모를 확보

5. 4680 배터리 현황

- 1Q24 4680 전지 생산량은 주간 1천개 이상 생산으로 +18~20% QoQ 증가(연간 7GWh 규모)
- "Ramping", 단위당 양산수율 개선과 생산량 증가 중
- 2024년 연말 전 니켈 기반 배터리(Nickel-based cells)의 생산 원가를 낮춰갈 계획

6. Cybertruck 현황

- Tesla의 지난 Cybertruck 양산능력은 주간 1천개 도달
- 주간 1천개 양산능력은 작년 4~5달 기준 1천개 양산능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ramp-up 속도를 갖춰가는 중

[시사점]

1. Tesla의 EV/배터리/ESS 공급 기업들에 환기 필요

- Tesla의 25년 EV 생산 가능 규모(3백만대) 및 ESS 설치 가이드를 감안 시, 4680 전지 100% 내재화 불가
- LG에너지솔루션, Panasonic, CATL, BYD 등의 기존 공급자들의 조력 필요
- LG에너지솔루션은 24.8월 국내 오창 4680 전지 양산(연간 9Gwh), 25~26년 미국 Arizona에서 ESS, 4680 전지 순으로 양산 예정
- 2023~24년 Tesla의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공급계약 사례 다수 발생 중, 향후 Tesla의 배터리 양산규모에 맞춘 국내 소재기업들과의 협력 사례 증가할 점

2. Tesla의 Price 및 Volume 전략

- Tesla는 2023년 Investor Day에서 공개했던 EV 전략 유지 중
- Volume 극대화를 위한 단위당 비용 절감 노력(공정/내재화 등)
- 원재료 수직계열화 및 배터리 공정개선(건식전극 등)을 통한 배터리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

3. ESS 전략

- 2024년 Tesla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부문은 ESS(+75% YoY 가이드스 제시)
-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Arizona에서 2025년 하반기 기준 LFP 기반 ESS 사업 개시 계획, 잠재 고객사는 Tesla 및 한화에너지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